

## 미련한 전도

수년 전 필자가 회사에 재직하던 당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Vladivostok)의 스베틀란스카야(Svetlanskaya) 거리에 있는 베르살(Versailles)이라고 하는 호텔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당초 출장 차 2주 일정으로 그곳에 머물 계획이었는데, 뜻밖에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한 달이 넘게 더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따분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호텔 어디에서나 직원들 모두가 한결같은 밝은 미소로 필자에게 넉넉한 기쁨을 선사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밤낮 구분 없이 수시로 직원들이 필자 방에 찾아와 ‘필요한 것은 없느냐’, ‘불편한 것은 없느냐’는 등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에 적잖은 부담도 느꼈지만, 그도 하루 이틀 아니게 대하다보니 만성이 되었던지 조금 지나고선 당연한 듯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필자 나를 오래 머물다 보니 이처럼 신경 써 주는 것이 어찌면 당연한 일일 것이라는 생각에 그럭저럭 마음만은 푸근하였습니다.

떠나오던 날 필자는 베르살 호텔 인근 시장에서 양복바지를 2벌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2벌밖에 되지 않았던 바지로는 한 달여의 기간을

그것도 외지에서 버터내기가 버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산 바지 길이가 한 뼘은 족히 길어 당장 입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기착지 일본 고베(Kobe)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까지 족히 하루는 여유가 있었던 까닭에 필자는 그곳 호텔 내 세탁소에 새로 산 바지의 수선을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날 시간이 다해 호텔을 떠날 때까지 수선된 바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간 직원들이 내게 보여준 친절과 호의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순간이었습니다. 여유시간도 알려 주었고 필자의 처지(여행일정)도 알려주면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던 건만 여하튼 무척 난감하고 불쾌하였습니다. 그래도 새로 산 바지가 그다지 비싼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없었던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렇지만 호텔 프론트데스크 여지배인에게 ‘필자를 마지막으로 이 같은 실수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당부는 분명히 해 두었습니다.

일본 고베에 다다를 때까지 웬지 모르게 자꾸 새로 산 바지가 마음에 쓰였습니다. 고베에서 용무를 다 마치고 이제는 오사카(Osaka)로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던 때문이었는지 그때 제 기억 속에 새로 산 바지는 이미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약된 오사카 호텔 프론트에서 예약을 확인하는 중에 필자의 신원을 확인한 호텔직원이 필자에게 잘 포장된 우편물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필자는 아무 생각 없이 으레 호텔에서 제공하는 기념품이겠거니 생각하고 이를 무심히 받아만 두었습니다. 이내 객실에 올라와 우편물을 뜯어보던 순간 필자는 그만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우편물 속에는 블라디보스톡 시장에서 산, 베르살 호텔에 맡겨

두었던 수선된 바지가 들어있었고, 이에 뜻밖에도 영문 모를 실크 넥타이 2장이 덩으로 끼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위에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베르살 호텔은 필자의 평생 단골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머무시는 동안 너무도 깔끔하게 방을 정돈해 주셔서 항상 우리가 감사하고 미안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호텔 세탁소 담당 여직원은 한 명이었는데, 그날이 여직원의 딸 결혼식이었습니다. 당일 휴가가 있었다는 것을 그만 제가 깜빡 잊고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 이러한 불미스런 일을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선생님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다시금 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봉한 실크 넥타이에 이런 저희의 마음을 담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스베타 (M'GR. Sveta) 올림”

일본 도쿄(Tokyo) 신주쿠(Shinjuku)에 곤바치(権八)라는 일식집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필자는 스기야마(杉山)라고 하는 동갑내기 회사직원과 저녁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일정이 너무도 빡빡하고 피곤하였던지라 그와 필자는 여유를 찾지 못하고 저녁식사에 임할 때까지 줄곧 날카로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진행된 우리의 브리핑에 담당 임원이 그다지 썩 좋지 않은 평가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식사는 어떻게든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이후로 심기일전(心機一轉)해보자는 취지에서 서로가 의기투합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다다미

(疊) 방에 마주 보고 앉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한동안 안 좋았던 마음을 추스르려고 하는 순간, 스기야마는 영문도 없이 갑자기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유인 즉, 그가 한술 뜨려고 했던 미소장국에 쌀 한 톨 크기의 나방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또 자리가 자리였던 만큼 그를 진정시켜 보려고 했으나 이미 물은 얼질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기야마의 호통에 우리 앞에 불려온 주방장은 필자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딴 판이었습니다. 곧 다다미에 무릎을 꿇고 연신 조아리면서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식사는 저희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무료로 차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저녁식사를 마치고 그 집을 나오면서 필자와 한동안 실랑이가 있었음에도, 끝내 주방장은 저녁식사 값을 받질 않았습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곧바치 식당은 필자의 평생 단골이 되었습니다.

꽤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퇴근하고 종로에 있는 대형책방을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3-4권의 책을 구입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향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필자 집은 서울 근교였던 까닭에, 한 번에 직접 가는 버스는 없었고 종로에서 청계천까지 걸어가 그곳에서 근처까지 가는 버스를 탄 뒤, 망우리 전에 내려 다시금 집 앞까지 가는 버스를 바꾸어 타야

했습니다.

한 동안 기다리다 조금은 한산했던 그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앞문에 채 한 발을 걸치기도 전에 버스기사의 입에 걸쳐진 자그마한 마이크를 통해서 낭랑한 인사말이 들려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피곤하시지요?”

지금은 평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 버스를 타면서 이런 인사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까닭에, 당시 필자는 무척 당황했었습니다. 기사의 이 같은 생경한 인사말에 무슨 말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저 난감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 켠에서는 푸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필자는 버스기사의 바로 뒤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여행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버스는 좌회전 할 겁니다. 손잡이 단단히 붙드세요.”

“할머니께서 타셨어요. 어느 분이냐 자리 양보하실 때까지 이 버스는 안 떠납니다.”

“고마워요. 학생. 제가 윈크하는 거 봤죠? 아마 내일은 재수가 좋을 거예요.”

“다음은 청계8가예요. 아주머니 내리실거예요? 뭐 빠뜨리신 물건 있는지 다시 한 번 둘러보세요. 지갑 같은 거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갑만 보지 마시고 다른 것도 함께 말입니다.”

“학생 내릴 겁니까? 시험 얼마 안 남았지요? 이 시간에 집에 가는 걸 보니

아마도 틀림없이 좋은 성적 나올 겁니다. 파이팅!"

“책 사신 선생님 내리십니까? 무슨 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읽어보시고 책 내용 좋으면 다음 번 제게도 좀 추천해 주세요. 피곤해보이시네요.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필자는 이내 버스에 내려 한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멍하게 서있기만 했습니다.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까지 필자 머릿속은 온통 비어 있었습니다. 이후 필자는 생각다 못해 이 이야기를 그대로 글로 써서 한 방송국에 투고하게 되었고, 운이 좋았던지 필자의 편지가 채택이 되어 방송국에서는 그때 버스기사에게 푸짐한 선물을 안겼었습니다.

이후 그 기사는 어찌어찌해서 필자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우린 다시금 짧으나마 못다 했던 나머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버스는 태릉교통 45번 버스였고, 그 회사버스는 지금까지 내 평생의 버스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아무 것 아닌 일에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부끄럽고 죄송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천직을 통해 더욱 보람 있게 그리고 열심히 분발하라는 의미로 알고 보내주신 선물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방송에 나왔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때문인지 다른 기사분들도 저처럼 마이크 한 대씩 사겠다고 야단법석이랍니다.”

“아무튼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선생님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천 냥 빚을 말 한마디로 갚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만큼 말 한마디가 소중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스페타와 주방장과 버스기사가 한 가지로 이야기 했던 바가 무엇이였을까요? 생각할 것도 없이 고객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이 지면을 빌어 필자에게 지극한 사랑으로써 평생 단골이 되게 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저마다 평생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전 10:24)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 13:01-03)

이상의 사례를 통해 필자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위 필자의 옛 추억에 비추어 전도(傳道)에 관한 것입니다. 사전에서 ‘전도’는 ‘기독교의 교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것이나 또는 그런 일’로 풀이됩니다.

성경말씀으로 보자면 다음의 말씀으로 일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기간 중에 전도를 게을리 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01:08)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마 11:01)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막 01:38-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눅 04:23-44)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딤후 01:03)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전도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구원의 은사에 감격하여 사는 마땅한 크리스천이라면 전도의 사명은 곧 크리스천의 모든 사명이라고 해도 과언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웃사랑’이 숨 쉬며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대들은 이를 위하여 그 생명까지도 초개와 같이 아낌없이 던져두었음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전도로부터 총명한 것들을 폐하셨습니다. 말씀은 이를 추상같이 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  
다”(고전 01:18-21)

그런데 전도함이 없이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던 신앙의 위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바  
(Sheba)의 여왕과 앞서 본 에디오피아의 신하 간다게(Candace)가 그들입니  
다. 기록에서 차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들 믿음은  
‘들음’에 있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으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위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일백이십 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왕상 10:01-10)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 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킵이나  
자기를 가리킵이나 타인을 가리킵이나”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행 08:26-40)

한편 성경의 기록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전도 왕을 꼽으라면 필자는  
단연코 요나(Jonah)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당시 ‘고대 오리엔  
트’(Ancient Orient)를 제패했던 강성대국 앗시리아(Assyria, 성경에서는 ‘앗수르’)  
의 가장 큰 도시였던 니네베(Nineveh, 성경에서는 ‘니느웨’)를 통째로 들어  
엎어 회개의 길에 들어서게 합니다. 실로 가공할만한 전도의 힘이었습니  
다. 당시 앗시리아 왕은 아닷니라리 Ⅲ세(Adad-nirari III, 재위 B.C.811-783)였  
습니다. 기록은 이를 다음과 같이 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굶은 베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굶은  
베 옷을 입고 재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떼나 양 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굶은 베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  
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전도를 ‘교회에 이끌고 나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본래 ‘전도’는 ‘복음’과 같은 뜻 동일한 단어로 새겨야  
합니다). 그것도 전도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회로 말입니다. 물론 전도자와  
함께 한 교회에서 지체를 이루어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다지 나쁜 일은  
아닐 것이라 봅니다만, 여기서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도의  
본래 취지와 그 핵심입니다.

앞서 본 스페타나 주방장이나 버스기사에서의 사례와 같이 필자는  
그들의 권유에 따라 호텔이나 일식집이나 버스를 평생 단골로 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그들의 마음과 행실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이 같은 마음과 행실에 우선하여 필자를 고객으로 이끌기 위한 속내를 우선시 해두었다라면 필자는 결코 그들의 호의를 거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고객에 대한 따뜻한 사랑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직장생활의 이유였고 나아가 삶의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와 목적을 올바로 분별하고 있지 못했다라면 아마도 그들 삶에 기쁨과 보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호텔과 일식집과 버스회사는 이들로 인하여 존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보다 정확히는 한결같은 이구동성의 공통점은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들이 필자에게 보여준 따뜻한 마음은 어디에도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미련스럽기 그지없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미련스러운 말 한마디를 가지고 필자의 마음에 평생이라고 하는 말을 심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도는 너무도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그 지혜가 고도화되고 정교해 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여 두고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끌려요 합니다. 보다 정확히는 전도를 교회로 이끌고 나오는 것으로 혼동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특히나 교회는 전도에 담긴 올곧은 뜻을 왜곡하고 그 폭과 범위에 구애됨이 없이 무조건 교회로 이끌고 나오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자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끌고 나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기보다 전도의 의미를 왜곡하고 그것도 강요하고 있다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곧 한 사람을 교회에 이끌고 나오기 위하여 그에게 접근하

는 방법, 말씀을 전하는 태도, 이렇게 나오면 저렇게, 저렇게 나오면 이렇게, 이런 저런 모양으로 대접하고, 또 이러한 환심을 통해 그 마음을 사두고,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 밖의 특단의 행동과 모습을 비추어 결국에는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몰아가야 한다는 그 지혜를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지혜가 앞선 사례에서 이야기했듯이 스베타나 주방장이나 버스기사가 필자를 고객으로 이끌기 위한 속내와 다를 것이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전도의 형식과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미련한 것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매사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중에, 항상 기쁨이 넘치고, 매일같이 감사한 마음에 기쁨기만 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때로는 은밀하게 구제하고, 나의 가진 것으로 남을 돌보며, 그들의 자량을 내 기쁨으로 그들의 슬픔을 더한 나의 슬픔으로 삼기를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선대들과 마찬가지로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필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대로 미련하기 그지없는 전도의 진수(眞髓)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멀리 있는 교우라면 가까운 교회를 천거하고, 비좁아 앉을 수 없이 교회가 뻘뻘하다면 나누어 쪼개고, 때로는 우리 교회가 저들의 교회가 되고 때로는 저들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며, 서로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힘쓰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더함이 있으면 나누면서,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올곧게 감당하는 것이 전도의 본질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전도의 다림줄(수평이나 수직을 헤아려 보기 위하여

추를 달아 위에서 늘어뜨린 줄)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것을 따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우러러보아야 합니다. 내리깔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피를 깎는 모범이 있어야 합니다. 얼렁뚱땅 소위 '새 생명 전도축제'라는 등의 행사로 일시에 치루고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같은 전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배경은 그 한 중심에 분명 '교만'(驕慢)이 주리를 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크게, 보다 많게, 보다 화려하게 꾸미고자 하는 그 흉악한 본심 말입니다. 스펀지, 주방장, 버스기사, 스바의 여왕, 간다게 등이 우리에게 보여준 행실로부터 처음부터 하나하나 전도의 진수를 다져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단은 미련한 것이 되어야 하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05:16)